

북스

어린이 책꽂이



▲호기심 정원=현대인의 삶의 터전인 도시에... 호기심 많은 아이 리아미 도시 이곳저곳을 탐험하듯 돌아다니며 갖가지 식물과 만나고, 죽어가는 식물들을 정성껏 돌보며 아름다움을 전한다는 이야기이다. <웅진주니어·9천500원>



▲검은 눈물 석유=인류 문명의 급격한 성장을 부추긴 석유 에너지에 관한 이야기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설명했다. 석유가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물가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석유를 둘러싼 전쟁, 자원 고갈 등 석유에 관한 상식을 한 데 모았다. 책은 사물과 현상을 보는 통찰력을 길러주는 데 중점을 두었다. <미래아이·1만2천원>



▲불랑한 자전거 여행=5.18 민주화운동을 다룬 소년소설 '기차길 열동네'를 썼던 김남중씨의 새 장편동화. 부모님 이혼으로 마음의 상처를 받은 초등학생 호진이 광주에서 부산까지 11박 12일간의 자전거 여행팀에 참가해 겪은 여정을 담았다. 알코올 중독 실업자, 말기 암 환자 등을 만나면서 자신을 되돌아본다. <창비·9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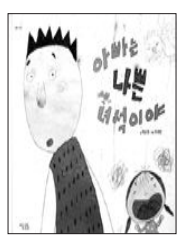
▲파브르 곤충이야기=큰배추흰나비, 금색박정벌레, 송장벌레, 딱따구리하늘소 등 파브르가 평생에 걸쳐 쓴 10권짜리 방대한 파브르 곤충이야기 중 어린이들이 가장 흥미를 느낄 만한 4편의 내용을 모았다. 단순한 곤충이야기가 아니라 인간과 자연을 이해하는 파브르의 철학적 깨달음도 담겨 있다. <사계절·1만800원>



▲왕십리별 달동이=묵묵히 앞을 향해 나아가는 어린 주인공을 통해 진실과 자신감, 성실함의 미덕을 일러주는 주는 창작동화다. 조선시대 왕십리에서 밭을 일구며 살던 달동이는 할아버지마저 잃고 혼자가 된다. 든든한 버팀목을 잃고 밭까지 잃을 처지가 되지만, 달동이는 밭 값을 돈을 차근차근 모아나간다. <시공주니어·8천500원>



▲숨비소리=제주도의 한 바닷가 동네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갖가지 일들을 그린 동화로 제주도 성산포에서 자란 김 섬씨의 작품이다. 관광지 개발 등 사회문제를 아이들 눈높이로 풀어냈다. '숨비소리'는 제주도 사투리로 해녀들이 바다속에서 해산물을 캐다가 숨이 차올라 물 밖으로 나오면서 내뿜는 휘파람 소리다. <푸른나무·9천200원>



▲아빠는 나쁜 녀석이야=가정과 회사에서 소외된 아빠를 아이의 눈높이에 맞게 그려냈다. 세상살이에 주눅 든 아빠와 철없이 보이지만 어느새 속 깊은 생각을 할 줄 아는 아이들을 위한 행복한 가족 그림책이다. 아빠가 아이들에게 직접 읽어주면 사랑이 새록새록 싹을 틔운다. <맹&영·9천500원>

▲나는 할머니와 산다 =임양언이 16살 소녀가 자신의 상상 속에서 돌아가신 할머니와 티격태격하면서 자신과 화해하고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아가는 청소년 성장소설이다. 세계일보 제3회 세계청소년문학상 수상작으로 최민경씨의 작품이다. <현문미디어·9천500원>

독재정권은 아름다움에 적대적이다

아름다움은 힘이 세다

피에로 페루치 지음



전체주의 국가의 조각상은 자유 국가의 조각상과 다르다. 가슴은 블록 튀어나와 있고, 얼굴 표정은 경직돼 있다. 정신과 육체를 풍부하게 표현한 밀로의 '피에타'와 비교해 보면 이들 국가의 조각상 차이는 더욱 분명하다. 독재정권은 아름다움에 적대적이다. 아름다움은 규범을 전복하기 때문이다.

이탈리아 심리학자 피에로 페루치의 '아름다움은 힘이 세다'는 심미안(審美眼)에 대한 이야기다. 저자는 인간이 진정으로 풍요로운 삶을 사는 유일한 길은 아름다움을 누리는 것이며, 아름다움에 대한 인식은 얼마든지 늘려나갈 수 있다고 말한다. 아름다움에는 인간이 현실 세계

에서 받은 상처를 치유하는 강력한 힘이 있다.

인간의 삶은 전쟁에 가깝고 인간의 마음은 상처로 가득하지만, 미를 추구할 줄 아는 인간의 능력이야말로 고통에서 탈출할 수 있는 비상구라는 것이다.

책에 인용된 조사 결과를 보면, 스웨덴인 1만2천명 가운데 극장이나 영화관, 음악회, 전시회에 자주 가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오래 살 가능성이 컸다.

영국 작가 울더스 헉슬리는 유명한 재즈 연주가인 데이브 브루베크에게 정신분열증 환자들을 위해 병원에서 연주해 줄 것을 부탁했다. 이 병원의 환자들은 세상과 단절된 채 하루하루 무의미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데이브 브루베크의 연주가 시작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환자들이 리듬에 맞춰 발을 구르기 시작했고, 일부는 직접 연주를 하는 등 음악이 강력한 치유의 힘이 있음을 보여줬다.

저자는 "아름다움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구름의 모양이나 들뜬 꽃, 번뜩이는 아이디어나 번갯불처럼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것이 어떨지 미리 말할 수는 없다. 아름다움은 나타나고 싶을 때 나타난다. 아름다움을 찾는 의무는 우리에게 없다."고 강조한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노인의 목'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했고, 램브란트는 '도살된 소'에

서 빛의 유희를 표현했다. 이처럼 아름다움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닌 소소한 일상에 살아 숨 쉬는 것이다.

또 북아메리카 인디언 중에는 돈이 많은 사람이 부자라 아니라 노래를 많이 아는 사람이 부자라고 생각하는 나바호 족이 있다. 이들의 언어에는 건강, 아름다움, 선함을 의미하는 '호호(hozho)'라는 단어가 있다. 이 단어는 아름다움과 선함을 결국 같은 것이라는 세계관이 담겨 있다.

저자는 심미안을 '미학적 지성'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며, 미학적 지성도 다른 지적 능력처럼 높여 나갈 수 있다고 말한다. 자신의 지적 판단을 믿는 자부심과 자유로운 사고방식을 가질 때 비로소 취향과 자아가 생겨난다는 것이다.

저자는 "아름다움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구름의 모양이나 들뜬 꽃, 번뜩이는 아이디어나 번갯불처럼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것이 어떨지 미리 말할 수는 없다. 아름다움은 나타나고 싶을 때 나타난다. 아름다움을 찾는 의무는 우리에게 없다."고 강조한다.

<웅진지식하우스·1만3천원> /공로기자 kroh@kwangju.co.kr



아름다움은 인간의 상처를 치유하는 강력한 힘이 있다. 사진은 미켈란젤로의 '피에타'.

美 JFK 암살사건 파헤친 소설

리브라

돈 드릴로 지음



1963년 11월에 일어난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의 암살사건은 20세기 최대의 미제사건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미국 현대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돈 드릴로가 1998년 발표한 '리브라'는 암살음모자 오즈월드의 행적을 추적하며 JFK 암살 사건을 파헤친 소설이다.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리 하비 오즈월드는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감호소에서 상담치료를 받으며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학교를 그만 둔 뒤부터 마르크스, 트로츠키 등에 빠지며 사회주의 비밀조직을 동경하게 된 그는 미 해병대에 입대해서도 관련 책을 탐닉한다. 소련에 건너가게 된 그는 결국 미 대사관을 찾아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겠다고 여권을 반납해 버린다. 이 사건으로 시선을 끌게 된 그는 소련 정보요원들에게 미 해군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면서 점차 케네디 대통령 암살 기도 계획에 연루된다.

소설은 왜 그가 대통령을 암살하게 되었는지 그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여러 인물과 세력을 중심에 두고 살폈다.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했지만 작가의 허구적 상상력이 개입한 픽션이다. 책 제목 '리브라'는 주인공의 별자리 이름(전칭자리)에서 따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신중현·한대수·조용필 등 인터뷰

대중음악 100대 명반...

박준홍 외 지음



신중현 등 한국 가요사의 거장부터 이장혁 등 인디가까이까지 한국 대중음악 대표주자들의 생생한 육성을 들을 수 있는 책이 나왔다. '한국 대중음악 100대 명반-인터뷰'는 문화기획 그룹 '기슴네트워크'가 선정한 '100대 음반'에 밝힌 음악인들과의 대화를 기록한 책이다.

책에 등장하는 신중현·한대수·조용필·배철수(송골매)·시나위·김수철·이정성·이상은·사랑과 평화 등의 인터뷰는 그대로 한국 대중음악사다. 여기에 허클베리 핀, 클래식라이프, 페니, 아소토 유니온, 루시드 풀, 언니네 이발관 등 다양한 연령층, 장르의 애호가들을 만날 수 있다.

집필에는 김작가·박준홍·서정민 등 한국의 대표적인 음악 평론가들이 참여했다. 다른 잡지 등에서는 만날 수 없는 깊은 인터뷰가 가능할 수 있었던 건 바로 대상자의 음악을 꼼꼼히 들은 이들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질문에 아티스트들도 '진지하게' 답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지난해 발간된 '한국 대중음악 100대 명반-음반리뷰'의 후속편이다. 참고로 명반 1위는 1985년에 발매된 들국화 1집 이었고, 유재하의 '사랑하기 때문에', 김민기의 '김민기', 어필날의 '1960-1965' 등이 뒤를 이었다.

/김미연기자 mekim@kwangju.co.kr

러시아 혁명의 전설적인 한인 여성

소설 김알렉산드라

정철훈 지음



김알렉산드라, 본명 알렉산드라 페트로브나 김(스판베치), 1918년 9월 피살되기까지 한인 여성으로 러시아혁명의 한가운데서 활동하며 전설적인 존재로 남은 그녀에 대해 우리는 정작 아는 것이 거의 없다.

소설가이자 문학전문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정철훈(50)씨가 이 역사적 인물 김알렉산드라를 주인공으로 한 '소설 김알렉산드라'를 펴냈다. 장편소설 '카인의 정령'에 이은 자신의 세 번째 장편소설. 작가는 그녀의 열정적인 삶을 직접 수집한 자료들을 토대로 생생하게 살려냈다.

1900년대 초 '우랄'이라는 혁명공간을 배경으로 한 작품에는 실존 인물들의 실제 행적을 추적하고 있다. 프롤로그와 에필로그에 해당하는 1부와 3부에서는 김알렉산드라의 둘째 아들이 화자로 등장하여 현재에서 과거를 되비추는 픽션의 틀이 되어 있지만, 소설의 본분이라 할 2부 '우랄의 딸'의 화자는 김알렉산드라로 그녀 자신이 1인칭 화자로 등장하여 혁명의 소용돌이 속 긴장감과 긴박함을 사실적으로 묘사해낸다.

작가는 이 소설을 통해 독자들에게 자식을 품어 안으며 등 뒤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우리네 '어머니'를, 혹은 비극적인 생을 마감한 독일의 여성 사회주의 혁명가 로자 룩셈부르크를 떠올리게 하는 듯하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일보 광고접수안내
☎(062)227-9600
FAX:(062)227-9500

상속한정승인공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9년 8월 6일

명리철학 수강생
주역구구식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체계적으로 배우실 분 환영합니다.

노정명리연구실
456-1666, 010-5717-1666

무등빌딩임대
최상의 업무지역,
금융지역 상업지역,
지하철역세권,
신형 주차시설 완비,
중앙공급식 냉·난방,
탁월한 무등산 조망권,
면적 330평 / 층 (분할임대 가능),
용도: 사무실, 판매시설

한문지도사자격 연수생모집
연수일정(2009년 제3기)
개강일시 월요일 오전반 2009. 9. 31(월) 9:10
개강장소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수강료 ₩300,000
원서교부 및 접수처
전화 (062)220-3873~5

한문지도사자격 연수생모집
연수일정(2009년 제 9기)
개강일시 금요일 2009. 9. 4(금) 09:10
모집기간 2009. 7. 23(목)~2009. 9. 5(토)
수강료 ₩298,000
원서교부 및 접수처
전화 (062)950-3584, 3585

광주대학교 평생교육원 스피치지도사자격 취득
스피치, 연설 리더십 실력 향상과정
교육목표: 대중 및 상대에게 감명과 감동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스피치 교육을 통해 리더 및 지도자로서 품위를 갖게 하는데 있음